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인천 최초 마커리스
방사선 치료 기술 도입

03 이모저모

인공지능으로
위암 예측 위험률 분석

05 미디어 들여다보기

EBS <명의> 공복혈당편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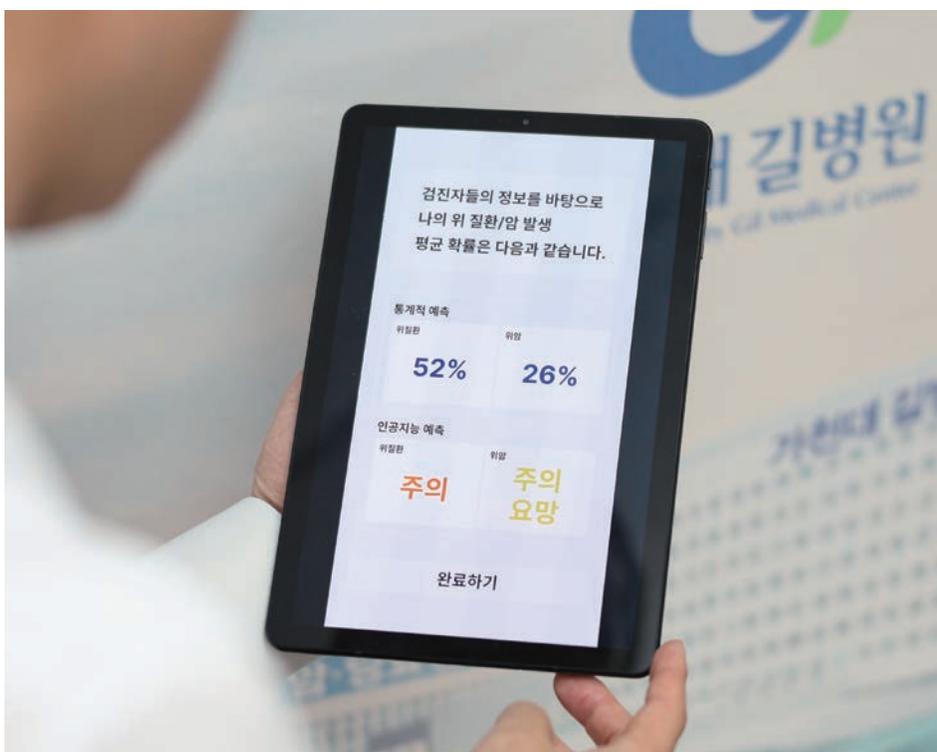
08 특별기고

내가 만난 이길여 총장님
최준렬 시흥중앙산부인과 원장



인천 최초, 마커리스 방사선 치료 기술 도입 치료 조준선 그리지 않아 환자 불편 해소

가천대 길병원이 방사선 치료를 위해 피부에 인체용 잉크로 그리던 조준선(마케)을 표시하지 않는 '마커리스 방사선 치료 보조기'를 전체 방사선 치료실에 도입했습니다. 마커를 그리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어 위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공지능 위암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혈액검사, 건강검진, 생활습관 등 종합해 위암 위험률 분석

가천대 길병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위암 발병 위험률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고령, 체질, 검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위내시경을 받지 않는 위험군들이 본인의 전자의무기록과 문진으로 위험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련 3면



인천 최초 표식 없는(마커리스) 방사선 치료 기술 도입

방사선 치료 위해 환자 몸에 암 위치 조준선 그리지 않고 치료
마커 지워질까 걱정 없어 위생적, 미용적 불편 해소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지역 최초로 방사선종양학과 전체 치료실에 마커리스(marker-less) 방사선치료 보조기를 도입했다.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환자 피부에 인체용 잉크를 이용하여 치료 조준선(마커)을 표시하는데, 치료 시 동일한 자세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선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마커를 유지해야 한다. 통상 4주에서 6주에 걸쳐 매일 반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들은 마커 유지를 위해 목욕, 샤워 등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위생적, 미용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환자 몸에 마커하지 않

는 방사선치료 보조기 얼라인RT(AlignRT)를 도입, 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두경부암, 뇌종양을 제외한 전체 암종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가천대 길병원이 도입한 얼라인RT는 무표식 표면 유도 방사선치료기법(Markerless 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으로 방사선치료 시 장비가 환자 치료 부위의 체표면을 인식하여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마커가 없이도 정확하게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천장에 설치된 3개의 카메라가 환자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이용해 3차원 영상을 구성하고, 치료 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가천대 길병원 성기훈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은 “이 기술은 환자의 자세를 0.1mm 단위

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하던 X선 사용 영상 유도를 대체할 수 있어 방사선 노출을 줄이며, 치료 기간 동안 ‘마커’로 인한 불편함 없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최첨단 암치료기 ‘헬시온’과 ‘얼라인RT’의 운영으로 방사선치료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헬시온은 실시간 영상 유도 기반의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장비다. 기존 방사선치료 대비 4배 빠른 치료기 회전 속도와 2배 빠른 다엽콜리메이터(가변형 방사선 조준장치·Multi-leaf Collimator) 속도로 환자의 치료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립선암, 폐암, 간담췌암, 두경부암, 직장암, 전이암 등 대부분의 종양 치료에 헬시온을 적용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마커리스 방사선치료센터는 헬시온은 물론 호흡연동 암치료기 래피드아크(RapidArc), 클리닉ix 등 방사선치료기(선형가속기)를 운영, 마커리스 보조기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첨단 방사선 치료기와 표면유도치료 보조기의 도입으로 가천대 길병원이 방사선 치료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 성과를 물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설립 장애인기업 가천누리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 사업 기업 선정...1억 지원금



가천대 길병원의 자회사인 장애인 기업 (주)가천누리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예술 운영 지원 사업 대상 기업으로 최근 최종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들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단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기관이 응모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가천누리를 포함해 총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는 장애인 재능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가천누리는 사진 굿즈(상품)와 비즈

공예품 제작, 이 과정을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는 내용의 ‘영상 콘텐츠 아트 공예 창작팀’으로 공모에 도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가천누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가천대 길병원이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014년 설립됐다. 직원 32명 중 관리자를 제외한 30명이 중증장애인으로, 10년 째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시경 꼭 해야 할지, 내시경은 부담돼서...' 혈액검사 등 건강정보와 생활습관으로 위암 발병 위험률 분석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위암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식약처 인증 획득 완료



2.0'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위암 예측과 조기발견을 위한 '닥터앤서 2.0'을 참여 중이다. 닥터앤서2.0 사업 중 위암 질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위암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와, 위암내시경 시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의 의무기록(EMR)과 문진을 통해 위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AI-Doctor for Gastric Cancer)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게 됐다.

이 소프트웨어는 대상자의 혈액검사 결과, 헬리코박터 검사 등 건강검진,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에 생활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위암 발병 위험률을 도출한다. 생활습관, 건강검진, 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포함하는 3만건 이상의 EMR 빅데이터를 확보해 위암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행한다.

'꼭 검사를 해야 할지' 혹은 '내시경검사는 부담돼서' 등의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위험군들이 본인의 전자의무기록과 문진(설문조사)만으로도 위험률을 분석하고 시각적인 결과물로 제공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는 "위암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고령, 체질 등 환자들의 불안 요소로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정량화된 위암 발병 위험률을 산출해 환자의 내시경 순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위암을 조기진단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위암 예측 소프트웨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



가천대 길병원, 인천시장배 탁구대회 의료지원 봉사단 파견 (8/17~18)

탁구 동회회원들 대회 참가, 개인 우승도



가천대 길병원-청담해리슨송도병원, 진료협력을 위한 협력병원 체결식 (8/20)

긴밀한 네트워크로 환자 건강 증진 상호 협력



가천대 길병원-연세백퍼센트병원, 진료협력을 위한 협력병원 체결식 (8/7)

진료의뢰, 회송, 전원 등 협력할 것



직업환경의학과의 강성규 교수, 산업재해예방유공 근정포장 수상 (8/19)

한국인 최초 국제산업보건학회장 등 역임 공로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교수, 『지금까지의 갑상선은 잊어라』 번역 출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을 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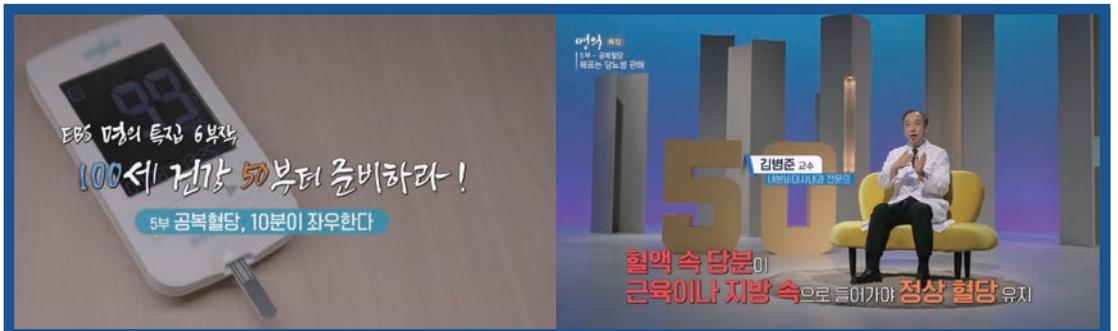


가천대 길병원 임직원 헌혈 봉사 지속,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감사 전하와

헌혈액자 3점 병원에 전달... 총 10점 완성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 EBS <명의> 특집 5부 공복혈당, 10분이 좌우한다 (8/9) 젊은 연령층에서의 혈당 관리를 위한 비결과 당뇨병 예방 중요성 소개



▶ 감염내과 박운선 교수

KBS 뉴스 (7/31) 장마 뒤 폭염에 말라리아 비상



▶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

KBS 9시 뉴스 (8/7) 영유아 온열질환 위험



▶ 재활의학과 임오경 교수

SBS <모닝와이드> (8/7) 취침 시 선풍기 안전 이용



▶ 안과 이윤진 교수

KBS <재난방송센터> (8/11) 물을 통해 전염되는 여름철 눈병



▶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

SBS <모닝와이드> (8/13) 베이킹소다의 구취 효과



▶ 감염내과 엄종식 교수

KBS <사사건건> (8/16) 긴급진단! 코로나19 재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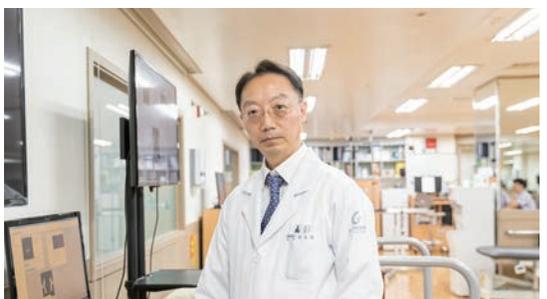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23) 온열 질환 폭증



▶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

JTBC <중독자들 어벤져스> (8/24) 장 건강과 방귀의 관계



▶ 재활의학과 이주강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8월 매주 금요일) 뇌질환의 재활



▶ 이비인후과 선우웅상 교수

중앙일보 <고령자 난청> (8/12) 고령자 난청, 보청기로 재활 도모



▶ 종양내과 심선진 교수

중앙일보 <양성 종양> (8/19) 양성종양의 특징과 치료



▶ 소화기내과 권광안 교수

한국일보 <젊은 대장암> (8/20) 40대 이하 젊은 대장암 세계1위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영상 바로보기

고령자, 만성질환자도 가능!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척추내시경 수술

전신마취와 절개에 대한 부담으로 척추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척추내시경 수술은 일반적인 절개 수술과 달리 내시경 기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와 근육 박리를 통해 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전신마취가 어려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 척추센터 유병래 교수

- ▶ 진료분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종양, 척추내시경
- ▶ 약력: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종신회원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종신회원



영상 바로보기

가천대 길병원 해외 심장병 어린이 초청 치료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봉사 현장 속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에서 현지 심장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봉사 현장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이번 봉사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광역시가 함께 시행하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진료를 통해 해당 도시와의 교류 기반 강화 및 국경을 초월한 나눔의료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창휴 교수와 소아심장과 안경진 교수, 간호사, 사회사업팀 등 봉사단은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하고, 현지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진료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고객의 소리



심장내과 최성화 교수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가 부정맥을 전문으로 보신다고 해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는 순간 너무도 설명을 잘해주시고 작은 미소 속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부정맥 시술을 받고 회진하실 때도 다정다감하게,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셨지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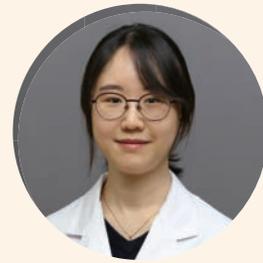
강00님



외과 이근철 교수

오늘도 편안한 미소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낮춰주십니다. 처음 외래 진료에서 뵈 첫 인상도 정말 좋았어요. 수술 날짜도 환자에게 맞춰 정해주셔서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합니다. 휴일도 없이 일요일 이른 아침에도 병실에 회진을 오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오래 오래 많은 환자들을 돌봐주세요.

임00님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소영 교수

올해 초 이소영 교수님 진료 및 검사 후 생전 처음 들어본 종격동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 나에게 발생해 충격을 받았고, 다른 병원도 가보라는 주변 사람도 있었으나 우리 지역의 최첨단 병원인 길병원과 이소영 교수님을 믿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에 병원 복도를 걸어다닐 정도로 경과가 좋았습니다.

송00님



암센터 마취과 하지민 간호사

얼마전 저희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셨을 때,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하 간호사님께서 마취가 깨는 동안 옆에서 잘 지켜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상태를 물어봐주셔서 회복하실 때 안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잘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보살펴주신 병동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장00님



내과계집중치료실 윤소정 간호사

입원 생활이 불편해 자주 불평하게 되고 귀찮게 했는데 삶은 내색 전혀 없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목이 마를 땐 가제 수건에 물을 축여 입술에 대주는 모습에 짜증과 화가 수그러들었습니다. 딸 보다 더 정성스러운 천사같은 윤소정 간호사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원00님



암센터 수술실 민숙원 수간호사

이번에 길병원에서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술실에 도착해 긴장해 있었는데, 제 긴장을 풀어주려 두 손을 꼭 잡아 주시며 엄마랑 아가 모두 다 건강하게 수술 잘 마 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용기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김00님

친절 우수 직원

2024년 7월 4주차~8월 3주차

부서 | C7A병동, C7B병동, C9B병동, 본관 수술실, A168병동, A88병동, M7층병동, R7층병동, I116병동, I126병동, I136병동, I176병동, 분만실, CT주사실

진료부 | 감염내과 홍신희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임영실 산부인과 김석영 신경과 이영배 심장내과 박예민, 장영우, 하경은, 최성화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소영 외과 김성민, 김두진, 이근철, 전용순 외상외과 전양빈 응급의학과 박형수 정형외과 진동욱 중양내과 김영생, 배지홍 통합내과 이태호 피부과 김희주 소화기내과 김주현

간호본부 | 수술간호팀 공미진, 민숙원, 조선미, 지은주, 홍미경 외래간호1팀 문연화, 신정은, 윤유경, 황술 외래간호2팀 박성희, 정지영, 조은이, 최윤정, 최인혜, 황지선
입원간호1팀 강복순, 권오윤, 김예림, 김해람, 노지연, 류경, 박근휘, 박동건, 박원영, 박정은, 오은채, 이세희, 이지은, 이해미, 예민, 정현수, 조다솜, 최현아 입원간호2팀 김가현, 김다혜, 김소정, 김승관, 김지은, 문승혜, 민성주, 박규리, 박예림, 변은진, 서은주, 선예지, 안명희, 안연희, 오수경, 오유림, 유해연, 이나경, 이상록, 이수경, 이윤아, 이재민, 이지수, 임서윤, 최창순, 황지원 입원간호3팀 김명옥, 민서원, 박소연, 박지연, 서현숙, 성혜영, 신혜정, 이채은, 정은진, 정지윤, 조신영, 차연희 중환자간호팀 김아름, 정다우리 특수간호팀 권다인, 박은희, 이동민 소화기내과외래 한소정

행정 및 진료지원 | 재난방재팀 손진권 원무팀 박정선 VIP건강증진센터 김현숙, 이효숙

가천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최고 'S등급', 128.9억 지원

무전공(자유전공선택제) 확대, 수준 높은 전공선택권 제공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위한 학사구조 개편 '탁월'

가천대학교가 8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전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차년도 평가에 이어 연속 S등급이다. 가천대는 최고 등급 선정으로 인센티브 68억 4천여만원을 비롯해 총 128억 9천여만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교육혁신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을 돕는 사업으로 총 11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차년도 성과평가는 △교육혁신 전략 △자체 성과 관리 총 2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학별 평가를 거쳐 S, A, B, C 네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학생의 무전공(전공자유선택제) 확대 등 교육 과정 혁신, 학생지원체계 고도화의 추진 성과 등을 평가했다.

가천대는 학생의 전공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유전공(유형1)과 모집단위 광역화 단과대학(유형2), 전과제도 확대로 수준 높은 전공선택권을 제공하고 3학년 2학기에 12주는 일반교과수업을 하고 나머지 4주는 몰입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P-학기제를 운



영하여 현장실무수행 및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천대는 올해 입시부터 자유전공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3개 단과대학의 모집단위를 광역화, 총 881명을 전공자유선택제로 선발한다. 자유전공은 지난해 51명에서 321명으로 대폭 늘렸고 AI인문대학을 비롯해 법과대학, 반도체대학에서 모집단위 광역화로 560명을 뽑는다. 전공자유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고 전

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로 학생의 흥미·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가천대는 학사제도 개편과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전주기 학생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천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85명, 석사 476명, 학사 1,300명 등 총 1,861명 배출



가천대학교가 22일 대학 예음홀에서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 인원은 박사 85명, 석사 476명, 학사 1,300명 등 총 1,861명이다. 학위수여식에는 이길여 총장을 비롯해 가천학원 송석형 이사장, 가천대 최미리 수석부총장 등 교무위원, 송성근 가천대 총동문회장과 학부모, 졸

업생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학위수여식은 개회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총장축사 △총동문회장 격려사 △상패수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학부 의료경영학과 김민후(여·22)씨와 심리학과 박지연씨(여·23)가 전체수석과 차석으로 총장상과 총동문회장상을 받았으며, 대학원 운동치료학전공 석사과정 독고정(여·52)씨와 기계공학전공 박사과정 트롱프억록(TRUONG PHUOC LOC·33·베트남)씨 등 14명이 총장상을 받았다.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선정

3년간 총사업비 72억원, 반도체기업과 협력, 석사 고급인재 양성

가천대학교가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3년간 총 72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청년의 대학원 진학 및 조기취업을 동시에 달성,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고급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이다. 가천대는 이를 위해 대학원에 차세대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

는다. 신입생 모집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한다. 가천대는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참여 기업대상 교과과정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체 수요기반 실무형 교육과정을 개발, 반도체설계와 반도체공학 전공 등 2개 트랙으로 운영한다. 입학한 학생들은 1, 2학기 학비전액을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고,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비도 받는

다. 3학기에는 약정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학비의 50%를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3학기(1년 6개월)만에 석사학위를 받는다. 가천대는 반도체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우수중소기업 16개사와 협약을 마쳤으며 34개 기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한 학생을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산학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협약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260명의 석사 고급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기고

내가 만난 이길여 총장님



38년 전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를 안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인천에 발을 디딘 지가. 트로이 목마처럼 동 인천역에 나를 내려준 기차는 뒤돌아보지 않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당시 길병원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 인턴들은

코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점심시간이면 흰 가운을 입고 와서 혼자 식사하시는 이길여 이사장님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았다. 식당 여사님들은 생멸치에 고추장을 이사장님 반찬으로 꼭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의치가 하나도 없고 허리가 꼳꼳하다고도 했다.

구월동 중앙길병원이 완성되어 이전했을 때 나는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되었다.

논 차트 시스템(Non chart system)으로 종이 차트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때도 ‘어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고, 병원에서 타자학원에 우리를 교육하러 보냈을 때 당구장에 몰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곤 했다.

그때는 여성암 환자들은 진료의뢰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보냈다.

레지던트 2년 차 때 여성암 권위자이신 서울대 교수님을 길 병원에 모시게 되었다. 긴 수술시간을 감당해야 하고 또 중앙내과가 없어 항암제 치료까지 해야 하는 등으로 힘들었지만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일을 도맡아 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길병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했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5층 당직실에서 잠자다 3층 분만실로 아기를 받으러 내려갈 때도 복도에 쓸데없이 켜져 있는 전등 스위치를 내리면서 갔다. 응급실에 호출되어 내려가면 한 명이라도 더 입원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사장님 지인이 산부인과에 입원하면 눈부시게 하얀 가운에 하이힐을 신고 간호 부장의 안내로 병실에 오셨을 때, 나는 바짝 긴장해 환자의 경과보고를 했다. 이사장님이 다녀간

병실 침대 하얀 베개 옆에는 이사장님이 놓고 간 작은 선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몸조리 잘하고 맛있는 음식 사 먹으라는 친정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한 마음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산부인과로 출발해서 종합병원으로 키워서인지 이사장님께서는 산부인과 송년회에는 꼭 참석해주셨다.

의국장이었던 나는 사회를 보면서 이사장님께 노래 한 곡 부탁드렸었는데 망설이지 않으셨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핸드백을 열어 뭔가를 찾으시더니 봉투를 꺼내 반주자에게 건넨 후 노래하셨다. 노래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힘들게 일하는 이에게 보내는 배려와 응원의 마음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레지던트 1년 차 때 네쌍둥이가 길병원에서 태어났다. 밀려드는 기자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네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을 알아보려고 책을 뒤졌던 기억이 있다. 매란국죽 네 자매가 간호사가 되었고 이사장님의 약속대로 길병원에 취직해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따뜻하게 성장한 길병원은 마침내 가천의대를 만들었고 지금은 모든 병원이 전자차트를 쓴다. 길병원의 폭풍 성장을 이끌어 가는 이길여 총장님의 미래에 대한 빛나는 비전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의 반도체대학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남보다 먼저 예감하고 예지하며 시작하는 비전과 용기의 원천은 무엇일까?

얼마 전 신문에서 이길여 총장님은 6.25 전쟁 때 서울의대 남자 동기들이 죽어갈 때 그 동기들의 뒤통까지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다.

전장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의대 동기들의 꿈들이 현현해 만들어질 가천대 길병원의 웅장한 모습과 뜨거운 심장처럼 박동하는 그 모습을 이길여 총장님께서 오래 지켜보셨으면 한다.

중앙산부인과(경기도 시흥) 원장

최준렬

